

두발 제한·휴대전화 금지 규정 완화될까

도내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교직원·학부모 의견수렴 거친 공론화 결과 관심

도내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이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78곳의 80%(64·67곳) 이상이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월 교복 개선(편안한 교복)을 정책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도교육감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12월 말까지 학교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별로 이뤄지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교복 뿐만 아니라 두발 제한,

화장·장신구 허용 여부, 휴대전화 사용 등의 항목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만큼 학생생활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지난 10월 각 학교에 의견을 전달했다.

지원단의 검토 의견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두발, 화장, 장신구와 휴대전화·전자기기 사용 등의 항목에서 제한 규정과 금지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양말과 책가방, 신발 등의 색상과 규격, 모양,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는 권고일 뿐 모든 항목의 규정을 학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권은 학교에 있지만 학생 인권 침해 요소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기존 학생생활규정에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용모 규제 등을 두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제주 시내 중·고등학교 10곳의 학생생활규정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중 2곳은 담임교사에게 이를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압류하는 규정도 됐다.

남녀 학생 모두 두발 길이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한 학교는 1곳 뿐이었으며 상당수는 '남학생'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한다'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화사한 신발은 금한다', '동절기에 여학생은 검정·살색 계열의 스타킹을 신는다', '반드시 하얀 속옷을 갖춰 입는다' 등의 내용을 규정에 담은 학교도 있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규정으로 제한하던 것을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어른들도 있다"면서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 아이들 스스로가 수업시간만큼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소방본부와 양 행정시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여 119건을 적발했다. 사진-제주소방본부 제공

아직도 소화전 앞 주차하시나요?

소방본부-행정시,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제주시·서귀포시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소방 출동로 확보 환경개선 사업 및 단속 등을 확대·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 안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2019년 4월 17일) 이후 전국 신고 건수는 총 46만 9082건(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26만2396건(5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 모퉁이 8만7830건(18.7%), 버스정류소 6만8822건(14.7%), 소화전 5만343건(10.7%)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본부와 양 행정시가 지난 달 27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119건을 적

발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난현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도민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당국과 행정시가 함께 안전표지 설치사업 및 단속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시 주관으로 도내 소방용수시설 중 소화전 1499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했으며, 향후 도로 표시 및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성숙한 도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생수에 농약 타 살인 시도 70대 남 항소심도 징역 3년

농약을 탄 생수를 마시게 해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짝사랑하던 여성 B씨의 차량에 농약을 탄 생수를 몰래 두고 가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가 생수를 마시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 수확하는 농촌 12일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무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어제 노형동 일부 가구 단수

12일 제주시 노형동 일부 가구에서 수도물 공급이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진군남4길 일대의 28가구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수도물 공급이 끊겼다.

본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수압이 떨어지면서 단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수압이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지 못해 공급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교통약자 차량 배차 대기시간 길어”

응답자 77% 불편 호소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 이용자들이 차량을 신청해 배차 받는 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10~11월 도내 1·2·3급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을 신청한 후 배차 받는 데까지 걸린 평균 대기시간은 45분 미만인 95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분 미만(83명·27.6%), 90분 미만(48명·16%), 30분 미만(39명·13%)의 순이다.

차량 신청 후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한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77%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50명·16.7%), 불편하지 않다(19명·6.3%) 등의 순이었다.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족한다가 전체의 63%로 절반을 넘었고 만족한다는 답변은 13.7%에 그쳤다.

교통약자 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개선점이 도출됐다.

장애인들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50여차례 저상버스를 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례중 약 24%가 장애인 승차가 어려운 지점에서 정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레저용차 충돌

12일 오전 6시28분쯤 제주시 오라동 오라2교차로에서 환자를 싣고 가던 119구급차와 레저용 차량(RV)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소방대원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탄 환자는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라동에서 연동 방면으로 가던 구급차와 오라CC에서 제주시 보건소로 향하던 레저용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자 추행 교수 벌금형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6월 27일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21)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7월 14일에도 연구실에서 제자(21)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제주대 교수에서 해임된 상태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골 신품종 분양

2020년 봄 출하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앵무(무독) · 천혜앵무(무독)
한라봉 · 탐나는종 · 황금향
미니향 · 아마나스
제라몬(레몬)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